

'도로 위 지뢰밭' 빙판길 시민 생명 위협



〈상〉 되풀이되는 결빙 교통사고

광주 5년간 사고 354건이나 경사지 등 위험구간 87곳 달해 눈에 안보이는 검은색 살얼음 '블랙아이스 현상' 운전자 아찔 제설작업·노후도로 재정비 시급

지난 1월 9일 A(71)씨는 빙판길을 주행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날 오후 1시께 A씨는 화순군 화순읍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자신의 싼타페를 몰고 도로를 달리던 도중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3m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영하 3도를 기록한 이날 A씨의 차량은 도로 곳곳에 만들어진 결빙구간을 지나던 중 미끄럼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여·57)씨는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칫 생명까지 위협했다는 게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 35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에서 빙판길을 달리던 운전자 C(46)씨도 단독사고를 내고 병

간(2013~2017년) 광주에서 서리·결빙으로 인한 노면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54건이다. 이중 3명이 사망하고, 683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54건 ▲2014년 92건 ▲2015년 39건 ▲2016년 102건 ▲2017년 67건 등 한해 평균 70.8건에 달했다. 지난해 자치구별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동구 5건, 서구 21건, 남구 1건, 북구 19건, 광산구 21건 등으로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08명 중 12명(11.1%)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자치구 등은 정체·고립·상습 결빙 지역 및 취약시설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해마다 관련 교통사고 발생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상습결빙구간은 38곳, 경사지 40곳, 기타(육교) 9곳 등 87곳에 이른다. 시 종합건설분부는 무전대로 우산교 남쪽램프구간 등 17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구는 대남로(남광주교가도로) 등 11곳, 서구는 운전저수지·KBS방송국 등 17곳, 남구는 대남로 백운교 등 16곳, 북구는

문흥초등학교·무등 도서관 등 14곳, 광산구는 송산C·구 롤러장 등 4곳 등이다. 특히 올 겨울의 경우 평년과 기온은 비슷하지만 간간히 기습 한파가 찾아오는 등 도로의 노면이 빈번하게 결빙될 것으로 예상돼 상습결빙구간과 경사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상습결빙구간의 경우 다른 곳보다 그늘이 지고,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 도로 노면에 남아있던 습기 등이 얼은 검은색 살얼음으로 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기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운전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블랙아이스' 도로를 지날 경우 순간적으로 당황해 급하게 핸들을 꺾거나 급제동을 하는 경우 많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상습결빙구간을 지날 때는 감속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치단체에서도 결빙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인천 '메르스 의심' 60대 숨져

1차 검사 음성...사인 파악 나서 업무차 이라크에서 4개월간 체류한 뒤 최근 귀국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숨졌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에서 건설업자 A(61)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가량 업무

차 이라크에 체류하다가 이날 5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전날 밤 9시에 서구 한 점집방에 혼자 갔다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이날 오전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러나 이 남성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이홍하씨 교비 횡령으로 교육 질 떨어져 광양보건대생 144명에 등록금 배상하라"

법원 "1인당 30만~90만원 줘라" 광양보건대학교 학생들이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144명이 학교법인과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홍하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보다 2380만원 많은 6370만원을 학생들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학생 1인당 30만~90만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비횡령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받는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근거로 2014년 대학 자체 평가에서 교사 시설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모두 전국 전문대 평균값에 미치지 못한

점과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2013년 기준 교비회계는 138억원인데 피고가 횡령한 교비는 1년 교비회계의 3배인 403억원"이라며 "2013년 등록금 전수금으로 수반한 24억원의 절반 정도도 2012년 회계연도 지출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액 일부는 다시 교비회계로 유입했다고 해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심하게 저하됐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지난 2015년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시설·설비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씨와 법인의 이사 등을 상대로 1인당 40만~120만원씩의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홍하씨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광양보건대 교비 403억원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 지난 해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해양쓰레기 수거하던 선장 끊어진 로프에 맞아 사망 지난 5일 오후 4시 4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역포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작업선 선장 A(58)씨가 로프에

맞아 쓰러졌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해경 헬기호 순천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경은 중량물을 끌어 올리는 권양기의 로프가 끊어져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식당 일 그만두고 싶다는 조카 불판으로 때린 삼촌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조카를 타이르다 화끈에 고기 굽는 불판으로 때린 40대가 경찰서행.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 5일 밤 9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치병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카인 A(26)씨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데 이어 불판으로 머리

까지 때렸다는 것. ○...이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조카가 '불판 댈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끈에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식당 일을 배우기 위해 취업한 조카를 혼내는 과정에서 과잉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아시아 문인들 5·18모지 참배 제2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에 참가한 아시아지역 문인들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유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익산서 길고양이 잇따라 숨져...독극물 살포 의혹 캣맘들 용의자 색출 촉구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이른바 '캣맘'들은 고양이가 독극물을 먹은 뒤 죽은 것으로 보고 용의자 색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익산시와 캣맘에 따르면 익산시 한 공원 주변에서 지내던 길고양이들은 지난 달 30일부터 차례로 죽은 채 발견됐다. 최

근까지 이 공원에서 사망한 고양이는 모두 4마리다. 캣맘들은 고양이가 힘없이 쓰러진 채 고통에 몸부림치다 사망에 이른 점, 입 주변과 코가 까맣게 변한 점 등을 들어 독극물 섭취를 주장했다. 고양이뿐 아니라 이 공원을 산책하던 진돗개와 수나우저도 구토와 설사 증세로 고

통을 겪고 있다고 캣맘들은 설명했다. 길고양이가 며칠 새 줄줄이 죽자 캣맘들은 이 공원에 '독극물 살포로 길고양이를 죽게 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 독극물 살포 용의자를 붙잡아달라며 익산시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연합뉴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